임실군, 벨기에와 우정 재확인

심민 군수, '벨기에 국왕의 날' 초청 참석…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로 이어진 60년 인연

심 민 임실군수가 임실N치즈의 아버 지 故 지정환 신부의 모국인 '벨기에 국왕의 날'행사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해 임실군과 벨기에 간의 깊은 인 연을 되새기며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지난 13일, 심 민 임실군수는 주한벨 기에 대사관의 초청으로 서울 포시즌 스 호텔에서 열린 '벨기에 국왕의 날 (King's Day) 행사에 참석했다.

이번 행사는 벨기에 왕실을 기념하 고 국왕의 즉위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 리로, 주한 외교단과 정부 관계자, 국 내 기업인, 벨기에 교민 등 2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.

임실군과 벨기에의 특별한 인연은 60여 년 전 '대하민국 치즈의 아버지' 로 불리는 故 지정환 신부(본명 디디 에 세스테벤스)로부터 시작됐다.

벨기에에서 온 지정환 신부는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해 당시 가 난한 농촌 지역이던 임실 주민들의 자 리을 돕기 위해 산양 두 마리로 치즈 를 만들기 시작했고, 3년간의 시행착 오 끝에 1967년 국내 최초의 치즈 생 신에 성공했다.

지정환 신부의 헌신은 오늘날 임실 N치즈'로 이어져, 임실은 신선치즈, 숙성치즈, 발효유, 무가당 요거트 등 고품질 유제품을 전국에 공급하며 '대 한민국 치즈의 수도'로 자리매김하고

또한,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 치즈축제는 2015년 첫 개최 당시 10만 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



심 민 임실군수가 임실N치즈의 아버지 故 지정환 신부의 모국인 '벨기에 국왕의 날' 행사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해 임실군과 벨기에 간의 깊은 인연을 되새기며 우의 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성장해,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3대 축 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.

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린 임실N치즈축제는 축제 기간에만 61만여명이 찾아 역대 최대 방문객 수 를 기록하며 전국 대표 관광 축제로서 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.

임실군과 주한벨기에 대사관은 지정 한 신부의 뜻을 기리며 뜻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그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가고 있다.

지난 2023년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개 관 행사를 비롯해 새만금 잼버리 벨기 에 대원을 격려하고 벨기에 지정환 신 부님 가족을 초청하는 등 교류를 지속

적으로 이어왔으며, 올해 임실N치즈축 제에 브루노 얀스 벨기에 대사 초청 등 여러 공식 행사를 함께하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.

군은 앞으로도 지정환 신부의 모국 인 벨기에와의 교류를 확대해 문화・ 관광·산업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관 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심 민 군수는 "벨기에 왕가를 기념 하는 국왕의 날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"며 "지정환 신부님을 통해 맺어진 벨기에와의 소중한 인연을 바 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/임실=진홍영 기자

겨울철 대설·한파 대책기간 운영

남원시, 한파 저감시설 점검 · 취약계층 보호 · 합동 점검 등 실시

남원시 겨울철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지역 내 한파 취약계층 과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, 각종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 안 강화를 위해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설·한파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.

이를 위해 시는 한파 저감시설 점검, 취약계층 보호, 결빙 취약구간 예찰 및 자동제설장치 점검 등 다양한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, 한파에 취약한 지역 내 방풍시설과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에 대해 합동으로 점 검을 실시하고 있다.

점검 과정에서 이상 발견 시 즉시 정비하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 또한 결빙 취약 구간에 모래주머니

5,000개 설치 및 제설 자재를 충분히

확보하여 겨울철 제설 활동을 신속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 며, 제설 작업 구간은 주요 법정 도로 총 525개 노선 423km로,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는 읍면동 협조를 통해 자체 제설봉사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.

특히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 가적인 조치로, 주택 및 상가의 수도 관 동파 방지 대책을 홍보하고 있으 며, 농수축산물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 를 진행하고 있다.

남원시 관계지는 "이번 겨울철 한파 를 대비해 지역사회에서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며,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모든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/남원=김기두기자

남원시, 시민 소통위원회 5차 정기회의 개최

행했다.

이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대상지 중 운봉읍 소석경로당을 방문하여 사 업설명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장비, 의료차량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, 조 만간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연을 16개 읍면 대표 경로당이 시청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강화 등 남 원시만의 새로운 복지 모델에 대한 기

관 방문과 현장 실사를 통해 고분군이 남원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, 보존과 홍보 방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.

최경식 시장은 "시민 소통위원회가 동부권역 주요 현안 시업지를 직접 방 문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시민과 행정 간의 양방향 소통행정 역 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"며, "앞으 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 인 소통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"라고 /남원=김기두 기자 저했다.

남원시는 지난 14일 시민과의 소통 과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제2 기 시민 소통위원회 5차 정기회의를 동부권역 주요 현안 사업 현장에서 진

이날 소통위원회는 오전에 제2중앙 경찰학교 유치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 였으며, 남원시 유치를 위한 카드 퍼 포머스를 진행했다.

대감을 높였다.

임실군,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앞두고 캠페인 전개

임실군이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,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학대 예방 인식을 확산하 기 위해 사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

전개했다. 이번 캠페인은 지난 13일 임실동중 학교 앞에서 시작해 임실군 청소년 문 화의 집에서 진행됐다. 임실군을 비롯 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, 초·중·고등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 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. 하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, 지역 주민

에게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과 홍보 물

품을 배부하고, 아동학대 예방 신고 전

특히,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신고

화번호(112)와 신고 요령을 안내했다.

의 중요성과 긍정 양육의 메시지를 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 보활동을 통해 이동학대 예방에 대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를 위한 공공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/임실=진홍영기자

또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

보내왔다. /남원=김기두 기자 임실군 성수면, 귀농 · 귀촌

지역 소식통

남원소방서, 환자 신속

조치로 감사 메시지 받아

남원소방서(서장 김승현)는 지

난 12일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

발생하 단독 교통사고 현장에

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조 치에 환자 가족으로부터 감사의

신고를 접수한 1팀 용성펌프,

수지구급, 금지구급 대원들은

현장 도착 직후 차량 손상 상태

를 신속히 확인하고 머리 부위

를 크게 다친 부상자를 안전하

게 구조해 응급처치를 실시한

이후 환자는 머리 상처 부위

수술을 무시히 마쳤으며, 보호

지는 "아이의 생명을 지켜준 것

은 소방대원들의 빠른 판단과

응급조치 덕분"이라며 감사를

환자 어머니는 소방대원들에게

보낸 문자에서 "경황이 없어 제

대로 인사도 못 드렸지만, 이들

에게 응급조치를 잘 해주셔서

살 수 있었던 것 같다"고 고마

또한 "현장에서 최선을 다해

일하시는 소방대원들 덕분이다"

라며 "환자를 챙기는 것도 중요

하지만 대원님들의 건강도 잘

챙기면서 안전하게 일하셨으면

좋겠다"고 응원의 메시지까지

움을 전했다.

뒤 병원으로 이송했다.

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.

성수면이 지난 10월 27일부터 2026년도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.

정착 지원사업 신청 · 접수

이 사업은 귀농・귀촌인의 안 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며, 오는 19일까지 신청 기간이다.

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은 세부 적으로 귀농인 정착금 지원, 귀 농·귀촌 교육훈련비 지원, 귀농 소득시업 및 생산 기반 시설 지 원, 주택 구입·신축·수리 지원 사업이 있다.

신청 대상 공통 조건은 귀농 • 귀촌인 지원 신청은 세대주가 하며, 전입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(2021.1.1. 이후 전입)인 사 람, 전입 직전 1년 이상 타지역 거주한 사람이다.

노창래 성수면장은 "새로운 삶 의 터전인 성수면에서의 정착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" 고 말했다. /임실=진홍영 기자



'AI 전문가 양성' 본격 나선다

순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, 공모 · 보조사업 대비 운영

지역 액션그룹과 로컬 비즈니스 주체 육에 본격 나섰다.

순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전문교

순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지역 액션그룹과 로컬 비즈니스 주체들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AI 전문교육에 본격 나섰다.

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(사)행복충전소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'AI 전문가 양성 과정'을 운영한다. 첫 강의는 한국인 공지능기술산업협회 이원찬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원찬 교수가 포 문을 열었으며, 지난 13일 사업단 교 육실에서 진행됐다.

이번 교육은 단순한 역량 강화 치원 을 넘어, 내년부터 대부분의 공모·보 조사업에서 AI 활용 능력이 필수 요소 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대 비한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. 시업단은 수료생들이 자격증 취득까 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· 실무 지원 을 강화할 계획이다.

특히 이원찬 회장은 한국 AI 산업 활 성화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, 이번 순 창과의 인연이 지역 주민과 액션그룹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/순창=이양원 기자 으로 기대된다.

전주매일 캠페인